

2024. 4. 2.(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지훈	02-2133-7440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7쪽	장애인지역사회거주팀장	김은영	02-2133-7367

재가 장애인에 열린 '자립생활주택' 문...서울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개편...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체계적 운영 위해 결정
- 재가 장애인까지 자립생활주택 입주 자격 부여...자립생활 체험·지역사회 연착륙 효과 기대
- 입주자 선정 방식 변경...자치구가 입주자 모집·선정 담당해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 유지
- 4월 신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개소(동대문, 구로) 입주자 모집부터 개편 사항 적용

- 서울시는 현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퇴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기존 운영담당자 중심의 입주자 선정 방식이 각 자치구 중심의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로 변경된다.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 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68%)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변화 과정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입증했다.

○ 자립생활 주택에서 생활한 장애인들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22년), 이웃·친구가 없는 비율 감소(27.4%→19%), 친구·이웃 등 대인관계 증가(주 4회 이상 만남 28.6%→29%), 약 복용 개수 감소(5.29개→4.09개), 의료기관 이용 감소(88.0%→39.8%), 일자리 있음 비율 증가(38.5%→56.6%)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연구 :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변화 과정 등 연구

□ 이러한 성과에도 코로나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 조치로 지역사회 자립지원 활동이 어려워져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 퇴소장애인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져 입주자가 제한되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공실이 생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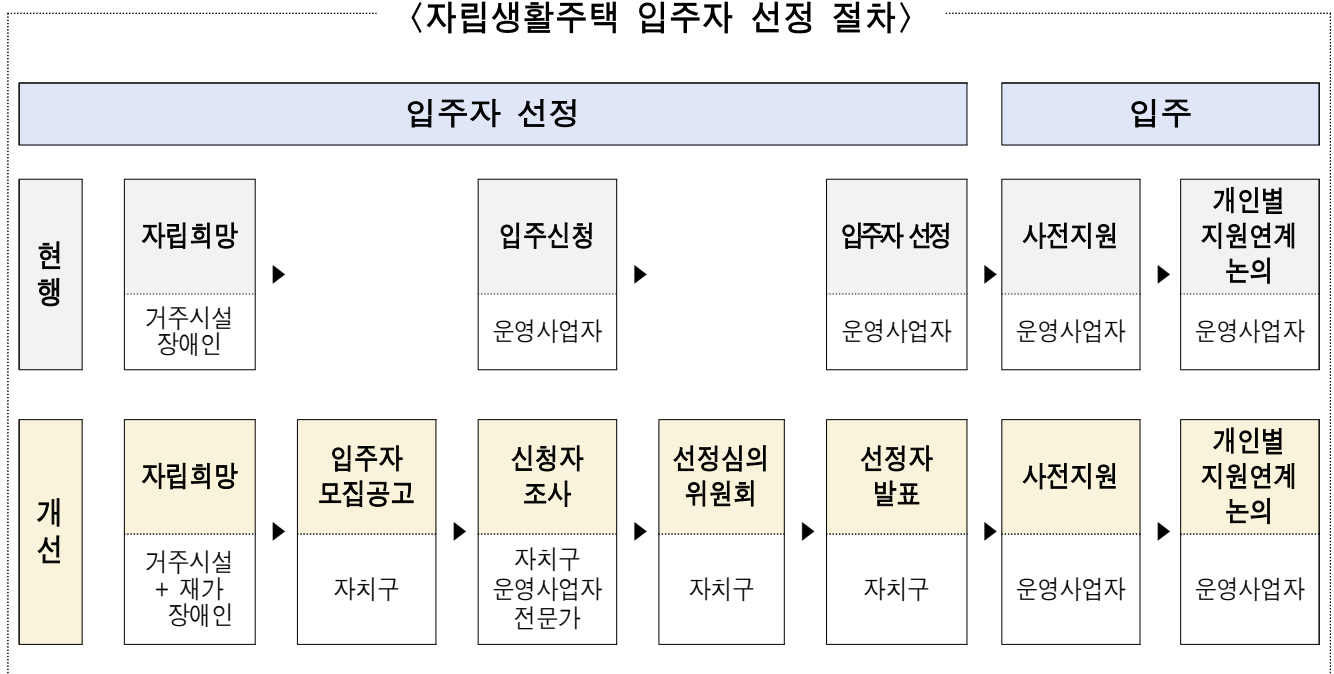
□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재가장애인까지 입주자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 우선,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

○ 이는 그동안 재가 발달장애인도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 시는 입주 자격 확대가 재가 장애인의 자립체험 기회를 늘리고, 지원 주택 등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자립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꾸어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공고, 입주자 신청접수 및 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주자와 예비자를 최종 선정한다.
 - 입주신청자 조사는 현장 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실시한다.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은 4월 중에 있을 신규 자립생활주택 2개소(동대문, 구로)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A씨(30대, 여성 발달장애인)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였고 동대문구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일하며 인근 IL센터의 자조모임에 월 1~2회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음. 그러나 지난 여름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가족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근 IL센터에서 몇차례 상담을 통해 ○○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희망함

30대 초반 발달 장애인을 둔 60대 노부부는 본인 사후에 아들이 어떻게 혼자 살아갈지 걱정임. 그래서 노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지역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임. 혼자 살 수 있을지, 어디서 살지, 어떤 방법으로 동네에서 살아갈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어 완전 독립하기 전에 잠깐 살아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연습 하는 곳을 찾고 있음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시설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험거주 주택 지원
- 운영현황 : 65개소(20개 자치구), 82명 입주 ※ 거주기간 : 최대 4년
 - 입주자 : 만 19세 이상인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구 분	가형(27호)	다형(38호)
입주대상	인지 능력있는 장애인, 경증 발달장애인	시설퇴소장애인 중 중증 발달장애인
운영비 등	45,824 천원/ 연	67,140 천원/ 연

- 지원내용 :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유지서비스 : 주택제공, 주거환경개선, 이주지원 및 자립교육
 - 자립지원서비스 : 일자리 활동,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등
- 운영사업자 : 34개(사회복지법인 1, 사단법인 1, 비영리민간단체 32)
- 주택개요
 - 주 거 비 : 월 평균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市) ※ 생활비 : 입주자 부담
 - 방 구조 : 방2, 주방1, 거실1, 화장실1
 - 면 적 : 17평~25평(59㎡~84㎡)

□ 연도별 사업실적 및 예산

(단위: 호/명, 백만원)

사업실적	'24.3월	'23	'22	'21
신규공급 (누적)	2호 (65호)	2호 (64호)	2호 (64호)	2호 (63호)
주택/입주자	41호/82명	40호/79명	49호/98명	56호/111명
예 산 액	4,250	4,619	4,185	4,258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부사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부사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참여
(쿠키클래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참여
(우쿨렐레 연주)